

말화 요소와 말화 유형*

김수진 · 차재은** · 오재혁

(나사렛대학교 · 경기대학교 · 고려대학교)

<Abstract>

Kim Soo jin, Cha Jaeun , Oh Jaehyuk. 2011. Utterance factors and utterance type. *Korean Semantics, 36*.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and apply the frame for analysis of utterance. Previous studies which could be identified 'utterance factors' and 'utterance type' were reviewed. Factors for utterance judgment were 'turn taking', 'utterance final intonation', and 'pause'. The system of the utterance judgement based on these factors was suggested. And construction factors of utterance were 'completion for grammar', 'sentence final ending', and 'pause'. The utterance type was divided based on these construction factors. In addition the kinds of utterance type were classified into specific group: 'normal', 'reversing', 'duplicating', and 'connecting'. After developing the frame for analysis of utterance, we applied the frame to the real data(utterances). More comprehensive empirical frame for utterance was suggested, the utterance factors were operationally defined, and this frame was verified to be applied.

핵심어: 말차례(turn taking), 말화 요소(utterance factors), 말화 유형(utterance type), 연결어미 말화(utterance with connective ending), 조각 말화(fragment utterance), 종결 억양(utterance final intonation), 종결어미 말화(utterance with sentence final ending), 휴지(pause)

* 이 연구는 한국 연구 재단의 연구비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KUN20110523-104.

** 교신 저자.

1. 서론

문어는 형태소, 단어, 어절, 구, 절, 문장의 위계를 가지는 문법 단위를 중심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문법 단위들은 명시적인 형태, 통사적 특징으로 정의된다. 이에 비해 구어는 음절, 음운 단어, 음운구, 억양구, 발화의 위계를 가지는 운율 단위를 중심으로 분석되며 이 운율 단위들은 소리의 높낮이, 휴지, 길이 등의 운율적 특징들을 중심으로 정의된다. 전통적인 문법 연구가 형태, 통사적 단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음성학, 음운론 및 담화 연구 부문에서는 음운구, 억양구, 발화와 같은 운율 단위가 주목 받아 왔다.

특히 언어 병리학과 같이 문어에 비해 구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큰 학문 분야에서는 운율 단위가 중요하다. 구어를 기초로 하는 언어병리학의 진단 및 치료에서는 발화가 분석의 기본 단위가 되는데, 김영태(1997), 배소영(1996)에서 발화 구분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문어에 기반한 문법적 틀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이윤경(2009)은 11세 남자 아동이 산출한 이야기 자료에서 한 문단 약 150어절 전체가 한 문장으로 전사된 예를 들면서, 언어병리학과 국어학자들이 함께 구어의 발화 분석 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발화에 대해 유필재(1994), 신지연(1998), 김태경 외(2005), 전영옥(2003, 2006), 조민하(2011) 등에서 논의된 바 있는데¹⁾,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발화란 ‘문어의 문장에 대응되는, 화자의 의도가 운율적으로 완결된 단위’ 정도로 정의된다. 또 전영옥(2003, 2006), 김태경 외(2005), 조민하(2011)의 논의에 따르면, 발화를 구분 혹은 구성하는 요소에는²⁾ 말차례, 종결 억양, 휴

1) 유필재(1994)에서는 발화를 ‘음운론적으로 양 끝에 휴지를 가진 완결된 단위’라고 정의하였다. 신지연(1998)에서는, ‘문종결 어미나 수형 억양으로 구분되고 의미상으로 한 덩어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으로 발화를 정의하고 있다. 김태경 외(2005)에서는 발화를 ‘음성을 통한 언어 형식으로 의사소통 행위 가운데 실현되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로 보았다. 전영옥(2003)에서는 구어의 기본 단위는 억양 단위로 ‘전체적인 억양의 통일성을 가지고, 단위의 시작에서 기본 피치로 다시 시작하며 휴지가 오고, 빠른 음절의 연쇄 현상이 나타나며 단위의 끝에는 장음이 오는’ 운율 단위라 하였다. 안병섭(2008)에서는 ‘화자의 발화 의지가 운율적으로 완료된 의사소통의 자립 단위’로, ‘조민하(2011)에서는 ‘화자의 의도적 완결성이 운율적으로 실현된 기능 단위’로 보았다.

2) 본고에서는 발화 구분 요소와 발화 구성 요소를 구별한다. 발화 구분 요소는 음성 언어를 발

지, 종결 어미, 통사적, 의미적 응집성 등이 포함된다³⁾. 화자의 발화 의도는 통사, 의미적 응집성과 종결 억양, 휴지 등의 운율적 응집성의 결합을 통해 하나의 발화로 구현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발화의 개념과 이를 구분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응용 분야의 요구를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각 요소들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이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발화 판정에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⁴⁾. 이제 발화 연구는 아동 및 성인의 자유 발화 자료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 가능한 ‘분석 틀’을 제시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표는 발화에 관한 국어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언어 병리학이나 한국어 교육 등의 응용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발화 구분과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그것의 효용성을 검증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문의 2장에서는 발화 구분, 구성 요소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각 요소들을 정의하고 각 요소의 기능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선정된 발화 요소들이 발화 판정과 발화 구성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발화 구성 요소들의 논리적 조합으로 출현 가능한 발화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연산하여 유형화할 것이다. 4장에서는 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만든 발화 판정 및 분류 절차를 가지고 성인 자유 발화를⁵⁾ 대상으로 발화와 발화 유형을 판정한 후, 그

화 단위로 판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으로, 발화 구성 요소는 발화의 유형 분류에 필요한 내적 구성 요소로 본다. 가령 발화 구분 요소인 말차레를 발화 구성 요소로 볼 필요는 없다. 자세한 내용은 본고의 2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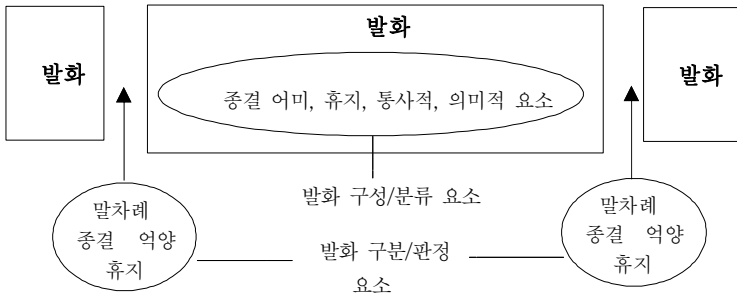
- 3) 본고에서는 ‘말차레’, ‘종결 억양’ 등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말차레’는 ‘turn-taking’에 대응하는 용어인데, 전영옥(2003)에서는 ‘차레맡기’, 조민하(2011)에서는 ‘순서 교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종결 억양은 김태경 외(2005), 조민하(2011)의 ‘억양구 경계 성조’에 해당한다. 이 용어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2장 참조.
- 4) 조민하(2011)에서는, ‘발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불변하는 규칙으로 존재할 수 없고 화맥의 영향을 받은 의미, 통사, 음운론적 요소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화자가 의도한 정보 전달의 기능을 수행하였느냐의 여부로 판단된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 발화 판정을 위해서는 각 요소의 상호 작용 및 상호 작용 결과를 명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 5) 이 연구에서는 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에서 구축한 성인자유발화 말뭉치 중 일부를 이용하였다. 이 말뭉치는 표준어 화자 57명의 자유 발화를 녹음하여 구축한 자료이다. 친밀도가 높은 세 명이 약 60분 동안 자유롭게 대화를 나눈 것을 녹음하여 전사한 자료로서 연구자의 간섭이나 진행 없이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진정한 구어를 연구하기에 매우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자료의 총 규모는

결과를 계량화하여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2. 발화 요소

전영옥(2003, 2006), 조민하(2011) 등의 선행 연구에 보이는 발화 구분 요소에는 말차례, 종결 억양, 휴지, 종결 어미, 통사적, 의미적 응집성 등이 있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는 각 요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각 요소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발화 요소는 그 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발화 요소들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해당 요소가 발화와 관련하여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각 요소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발화 요소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말차례, 종결 억양, 휴지, 종결 어미, 통사적, 의미적 완결성 등의 발화 요소를 기능을 기준으로 보면 크게 발화를 관정하는 데 필요한 ‘발화 구분 요소’와 발화를 분류하는 데 필요한 ‘발화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다. 다음 <그림 1>은 이를 보인 것이다.



<그림 1> 발화 구분/관정 요소와 발화 구성 요소

<그림 1>에 보이듯, 말차례와 종결 억양은 해당 발화가 다른 발화와 구별

35,439 발화이다.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지영(2008) 참조.

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발화 구분 요소로 기능한다. 반면, ‘종결 어미’는 한 발화를 종결 어미로 끝나는 발화와 그렇지 않은 발화로 나눌 때 필요한 내적 구성 요소로 기능한다. 휴지는 종결 억양 뒤에 올 경우 한 발화를 다른 발화와 구별해 주는 요소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발화 내에 위치할 경우 한 발화를 억양구로 구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제 <그림 1>의 도식에 따라 어떤 것이 발화 판정, 구성 요소로 적합한지, 이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1 말차례

말차례는 ‘발화를 시작한 화자가 다음 화자에게 발언권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보통은 한 번의 말차례에서 발화된 것이 한 발화가 되므로 말차례가 바뀌면 발화가 구분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다음 (1)에 보이듯, 말차례가 변경되지 않아도 발화가 바뀔 수 있는데, 이 경우 발화 구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종결 억양이 맡고 있다⁶⁾. (1)의 화자 B는 한 번의 말차례에서 세 발화를 말했는데, 이 세 발화는 종결 억양으로 구별된다.

(1) 한 번의 말차례 내에 세 발화가 있는 경우⁷⁾

A화자(1) 집이 켈 좋아요

B화자(1) 건 맞아(하강)

(2) 어떤 고시원도 그린타운보다 좋진 않아(하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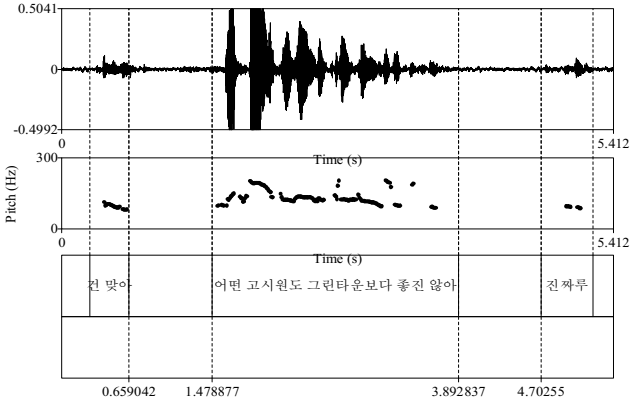
(3) 진짜루(하강)

다음 <그림 2>는 종결 억양에 의해, ‘건 맞아’, ‘~좋진 않아’, ‘진짜루’의

6) 이점에 대해서는 전영옥(2003), 김태경 외(2005), 조민하(2011) 등의 선행 연구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종결 억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2 참조.

7) 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에서 구축한 성인자유발화는 철자 전사를 원칙으로 하되 구어 정보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으로 전사되었다. 따라서 구어에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고→구), {-도→두}, {-로→루}와 같은 고모음화 현상이나, ‘어디 있니[어딤니]’, ‘그런데[근데]’와 같은 축약 현상은 구어 정보를 반영하여 전사하였다. 또한 세 화자가 자유롭게 발화한 녹음 자료이기 때문에 발화 겹침에 대한 정보나(‘[]’를 사용하여 발화 겹침을 표시함), 웃음, 기침, 소음과 같은 맥락도 표시하였다.

세 발화가 구분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 한 번의 말차례에 여러 개의 발화가 있는 예

한편, 말차례는 앞 화자의 발화 의도가 운율적으로 완결된 상태에서 다음 화자로 넘어가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종종 앞 화자의 발화가 정상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화자로 넘어가기도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말을 하고 있는 화자가 스스로 발화를 중단한 경우이며, 두 번째는 다른 화자에 의해 발화가 중단된 경우인데, 실제 발화에서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2)의 ㄱ은 자발적 발화 중단, ㄴ은 비자발적 발화 중단의 예로 볼 수 있다.

(2) ㄱ. 자발적 중단

A화자 진짜 망신스럽다

B화자 그러게 국어

C화자 살다 살다 너 같은 애는 진짜 찌이다

ㄴ. 비자발적 중단

A화자 야 내가 여태까지 내가 삼분의 이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니가 마무리를

B화자 여기에 물이 묻은 거예요 그래서
 C화자 뭐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니구

(2)의 ㄱ에서, 세 화자가 약간 흥분한 상태에서 B가 발화를 시작했으나 내용적으로 종결하지 못하고 중단하였고, ㄴ에서는 A가 발화를 다 끝맺지 못한 상태에서 B에 의해 발화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실제 발화 관점에서 발화의 실패와 중단에 대해 명시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2)의 두 경우를 묶어 ‘발화 실패/중단’으로 범주화하여 미완결 발화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요약하면, 말차레는 발화를 구분하는 요소이지만 핵심 요소는 아니며 발화의 내적 구성이나 특징과는 관련 없는 발화 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말차레는 발화 관점에는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발화를 내용적으로 분류할 때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담화·화용론적 요소이다.⁸⁾

2.2 종결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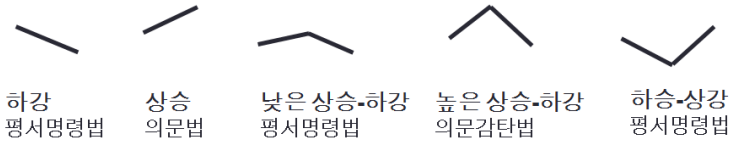
종결 억양은 ‘변별적인 문법적 기능과 구체적인 음성적 특징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는 억양’으로 정의할 수 있다(오재혁, 2011). 발화는 음절, 음운단어, 음운구, 억양구와 같은 운율 단위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음성 언어의 단위이기 때문에 종결 억양은 발화 단위의 종결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매우 중요한 문법적 요소이다.⁹⁾

8) 말차레는 응용적인 관점에서는 발화를 구분(판정)하는 매우 유용한 요소이나 발화를 구분하는 ‘종결 억양’, ‘휴지’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 ‘종결 억양’, ‘휴지’는 그 자체로 화자가 청자에게 발화가 종결되었음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지만 말차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따라서 ‘말차레’가 바뀌면 보통 발화가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말차레’가 바뀌지 않아도 발화가 구분되거나, 말차레가 바뀌어도 발화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9) 종결 억양은 억양 음운론의 억양구 경계 창조(IP boundary tones)나 영국식 억양 이론의 핵억양(nuclear tones)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억양구 경계 창조와 핵억양이 본질적으로 발화의 종결에 나타나는 억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운율 체계 내에서 억양구 단위와 말토크 단위의 끝에 실현되는 억양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화의 종결 지표로서의 발화 종결 억양의 개념에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안병섭(2008), 오재혁(2011)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종결 억양은 발화 끝 음절에 실현된 억양으로, 조민하(2011)에서는 L(진술), L:(암시), H(직접적 반응 유도), M:(미정), LH(간접적 반응 유도), HL:(감탄), LHL(단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연구는 서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종결 어미 문장이 아니라 연결 어미 문장을 대상으로 하였고 어디까지를 변별적인 문법 기능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시적인 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발화 판정 작업에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오재혁(2011)은 문법적 기능을 갖춘 문법소의 관점에서 지각적 연구를 통해 종결 억양을 도출하고 있으므로 작업자의 직관으로 발화 판정을 하는 작업에서 명시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오재혁(2011)의 논의에 따라 하강 억양(평서·명령법), 상승 억양(의문법), 낮은 상승-하강 억양(평서·명령법), 높은 상승-하강 억양(의문·감탄법), 하강-상승 억양(평서·명령법) 다섯 가지의 유형을 발화의 종결 지표로 채택하기로 한다.



<그림 3> 종결 억양(오재혁, 2011)

다음 (3)은 다섯 유형의 종결 억양에 의해 발화가 구분되는 예이다.

- (3) 다섯 유형의 종결 억양
- ㄱ. 그건 모르겠어(하강 억양)
 - ㄴ. 사십대 초반(상승 억양)
 - ㄷ. 전철을 탔는데(낮은 상승-하강 억양)
 - ㄹ. 우와 진짜(높은 상승-하강 억양)
 - ㅁ. 맘에 안 드시나 봐(하강-상승 억양)

(3)에서 보이듯 종결 억양은 발화의 구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종결

억양을 가진 단위는 언제나 발화가 되며 어떤 단위가 발화라면 그 단위는 보통 종결 억양을 가지고 있다¹⁰⁾.

종결 억양은 (4)에 보이듯, 단어, 구, 연결 어미, 종결 어미와 같이 다양한 문법적 형식과 결합하여 발화를 이루는데, 이러한 유형의 발화에 대해서는 전영옥(2003), 김태경 외(2005), 조민하(2011) 등의 선행 연구에서 다룬 바 있다.

(4) 동일한 하강 억양이 단어, 구, 연결, 종결어미 발화에 나타난 예

- ㄱ. 단어 여자애들
- ㄴ. 구 비싼 시험
- ㄷ. 연결 어미 네 완전 사람을 깔보고
- ㄹ. 종결 어미 저녁에 제가 맛있는 거 사 드릴게요

요약하면, 종결 억양은 발화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이며 서법적 특징을 보여주는 발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결 억양은 발화의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종결 억양이 있으면 발화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완결 발화로 간주된다. 형식적으로 종결 억양은 소리의 높낮이라는 음성적 특징을 가진다.

2.3 휴지

휴지는 ‘조음 활동의 일시적 정지 상태’로 정의된다. 하나의 발화 뒤에는 보통 휴지가 수반되지만 휴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발화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5)에 보이듯, ‘열시구, 열한시구’ 뒤에 충분한 휴지가 있더라도 이 뒤에서 새 발화가 시작된다고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종결 억양이 없다

10) 종결 억양을 가진 단위는 발화가 되나, 발화라 하여 모두 종결 억양을 갖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은 ‘이제 가려고 하는데…….’와 같이 말끝을 흐리며 대화 상대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발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발화는 조민하(2011)에서 ‘M:’로 기술된 억양이다. 이처럼 연결 어미로 끝맺으면서 화자가 바뀌는 경우는 종결 억양이 없더라도 ‘발화 실패/중단’은 아니므로 별도의 발화로 나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발화의 구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말차레이므로 M: 억양을 주요한 발화 구분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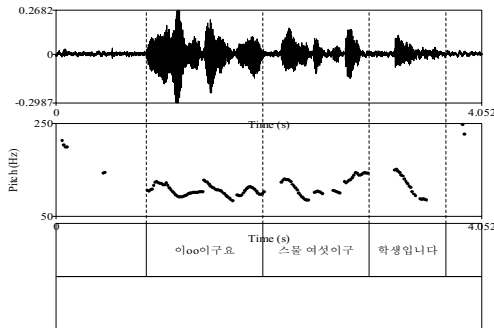
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발화 구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종결 억양이 맡고 있고 휴지는 부수적 요소라고 봐야 한다.

(5) 발화 내에 휴지가 개입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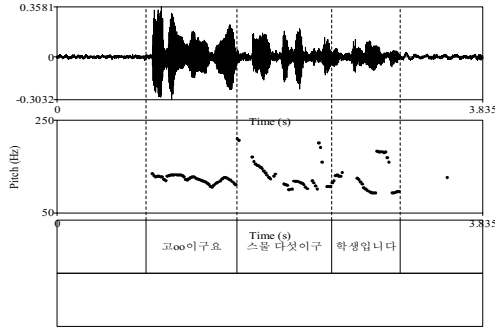
대학교 이학 이학년 때까지 열시구-/// 삼학년 때 간신히 열한시구-/// 사학년 되면서 이제 열두시 된 건데 제 동생 원 원스톱 바-로 새벽 두시 세시 들어오 구

휴지는 발화의 구분에서는 부수적 기능을 하지만 하나의 발화를 다른 발화와 구별할 때는 일정한 역할을 한다. 운율적으로 휴지는 하나의 억양구로 이루어진 발화와 여러 개의 억양구로 이루어진 발화를 구별해 준다. 즉, 휴지는 운율적으로 발화의 유형을 분류할 때 내적 구성 요소로 기능한다. 다음 (6)의 ㄱ.과 ㄴ.은 동일한 통사 구조를 가진 발화인데, 휴지의 개재 여부에 따라 세 개의 억양구와 두 개의 억양구를 가진 발화로 실현되고 있다¹¹⁾.

- (6) ㄱ. 이○○이구요// 스물여섯이구// 학생입니다///
- ㄴ. 고○○이구요// 스물다섯이구 학생입니다///



11) 이러한 예는 신지영(2011)에 제시된 ‘음절 - 음운 단어 - 음운구 - 억양구- 발화’의 운율 위계가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 통사적 구조는 같고 억양구 수가 다른 발화

요약하면, 휴지는 발화를 구분하는 요소이되 핵심 요소는 아니며 발화 내에서는 억양구의 판별 기준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휴지는 발화 관정의 부차적 기준이 되는 동시에 발화를 운율적, 내용적으로 하위분류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운율 요소이다.

2.4 종결 어미

종결 어미는 ‘한 문장(발화)을 종결되게 하는 어말 어미’로 정의되는데, 문어 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사적 성분의 종결을 나타냄과 동시에 문장이나 발화의 문법적인 기능을 드러내는 요소이므로 구어 문법에서도 발화 구성 요소로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결 어미의 목록은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종결 어미는 특정 발화의 집합을 종결 어미로 끝나는 발화와 그 외의 발화로 분류할 때 필요한 발화 구성 요소로, 종결 어미 자체는 발화의 구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다음 (7)에 보이듯, 종결 어미 뒤에 종결 억양과 휴지가 모두 동반되지 않는 경우(7-ㄱ), 혹은 휴지가 동반되더라도 종결 억양이 없는 경우(7-ㄴ)에는 별도의 발화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 (7) ㄱ. 하지 마요 그건
 나. 아까처럼 해- 그냥

발화를 종결 어미로 끝나는 발화와 그 외의 발화로 분류하면, 성인 발화의 어미 사용 양상이나 서법의 실현을 관찰하는 데 유용하다. 또 아동의 문장 구성 능력이나 구문 발달을 살펴보는 데도 유용하다.

요약하면, 종결 어미는 발화의 집합을 종결어미 발화와 연결어미 발화로 구분하는 내적 구성 요소이며 명확한 형태적 표지로 구별된다.

2.5 통사적 요건

이 요소는 선행 연구에서 통사적 응집성, 혹은 완결성으로 지칭되었으나 명확한 개념 정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조민하(2011:51)의 논의를 보면, 통사적 완결성은 ‘종결 어미의 출현’, 통사적 응집성은 ‘주어+서술어, 주제+설명부, 수식성분+피수식 성분’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나 이들이 발화 구분의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통사적 요건은 발화 구분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조민하(2011:53)에서는 휴지보다 통사적 응집성이 발화 구분 요소로 기능하는 예로, “솔직히 그때 인기 같이 있던/// 개 있잖아///”를 들고 있다. 그런데 본고의 기준에 따르면 ‘있던///’ 뒤에서 발화가 구분되지 않는 이유는 통사적 응집성보다는 종결 억양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통사적 요건은 발화의 판정 기준은 되지 못한다.

통사적 요건은 발화의 분류라는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통사적 요건은 발화가 갖고 있는 특성을 분류의 목적을 위해 설정하는 것이므로 발화 분류에 보편타당한 통사적 지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로 치환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통사적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통사적 특징이 무엇인가를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통사적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장의 논항 구조를 결정하는 서술어이다. 즉 통사적 요소들은 모두 서술어로부터 부여된 논항 구조에 따라 다

른 요소들과의 관계가 결정되고 성분으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서술어의 출현 여부가 통사적 완결성을 드러내주는 지표로 가장 적합하다. 이러한 기준은 서술어가 있는 발화와 그렇지 않은 발화를 분류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통사적 요건을 드러내주는 지표로 서술어의 출현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이를 ‘통사적 충족성’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다음 (8-7)은 종결 억양을 가진 네 개의 짧은 발화이다. 서술어의 존재를 기준으로 한 ‘통사적 충족성’에 따르면 A의 발화에는 통사적 충족성이 있고 B와 C의 발화에는 없다. 이 결과 (8-7)의 네 발화를 서술어를 갖춘 발화와 갖추지 못한 발화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류는 단순한 간투사(혹은 화용 표지)로만 이루어진 발화와 그렇지 않은 발화를 구분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8-4)의 예를 보면 A(1), A(3)에는 서술어가 있으며, B(1), A(2), B(2)에는 서술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B(1), A(2)는 하나의 명사구로 이루어진 명사문이며, B(2)는 독립어 즉 단어로만 이루어진 일어문이다. 통사적 충족성에 의해서 서술어를 갖춘 발화와 그렇지 않은 명사문, 일어문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통사적 충족성을 갖춘 발화가 보통의 발화라면 그렇지 못한 발화는 ‘조각 발화’라고 할 수 있다.¹²⁾

- | | |
|------------|------------------|
| (8) ¬ A(1) | 그건 하지 마요 |
| B(1) | 왜? |
| C(1) | 어? |
| A(2) | 싫어요 |
| ¬ A(1) | 동생이 몇 살인데? |
| B(1) | 지금 저- 지금 대학교 이학년 |
| A(2) | 대학교 이학년? |
| B(2) | 네 |

12) 서술어를 갖추지 못한 발화에 대하여 ‘조각 발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조각’은 보통 발화의 일부분이라는 뜻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명사문과 일어문은 보통 발화의 조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한 형식의 발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조각 발화’라는 용어는 서술어를 갖추지 못한 발화를 하나로 지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명사문, 일어문과 같은 형식의 발화까지 어떠한 완전한 형식의 ‘조각’으로 유추해서 생각하게 한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A(3) 한참 먹을 때네

요약하면, 통사적 충족성은 서술어의 출현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발화 구성 요소이다. 통사적 충족성을 기준으로 보통 발화와 조각 발화가 구분된다.

2.6 의미적 요건

선행 연구에서는 내용적 응집성, 의미적 완결성, 의도적 완결성 등을 발화 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의미적 요건은 통사적 요건보다 더 모호하게 정의되거나 심지어 정의되지 못하기도 했는데, 이는 ‘의미적 완결성’이 발화를 구분하는 요소가 아니라 다른 발화 요소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결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의미적, 의도적 완결성을 ‘화자의 발화 의도가 발화에 충분히 구현되었는지 여부’라고 정의할 때 이는 말차례, 종결 억양, 휴지, 통사적 충족성 등을 통해 관찰자들이 판단하게 되는 결과이지 발화의 내적 구성 요소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의도적 완결성의 여부는 발화 구분 요소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말차례’를 기준으로 보면, 담화 맥락 내에서 발화 실패, 중단은 결과적으로 의미적 완결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 (9)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 B는 발화를 끝내기 전에 C에게 말차례를 빼앗겼기 때문에 의도적 완결성을 드러낼 수 없게 되었다.

- (9) A 진짜 망신스럽다
 B 그러게 국어
 C 살다 살다 너 같은 애는 진짜 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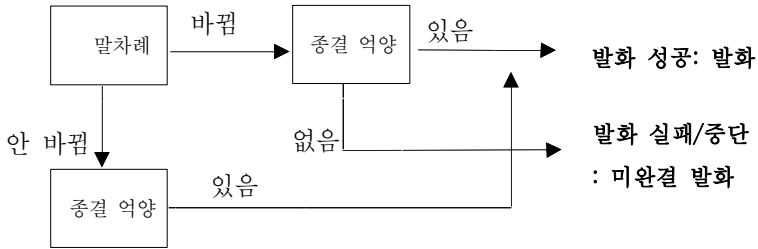
이처럼 ‘의미적 요건’은 발화 구분의 결과이지 내적 요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이 요소를 발화 요소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제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각 발화 요소의 특징과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발화 요소의 기능과 특징

발화 요소	정의	기능	구분
말차례	발화를 시작한 화자가 다음 화자에게 발언권을 물려주는 것	발화 판정	담화 요소
종결 억양	변별적인 문법적 기능과 구체적인 음성적 특징에 의해서 정의되는 억양	발화 판정	운율 요소
휴지	조음 활동의 일시적 정지 상태	발화 판정 발화 분류	운율 요소
종결 어미	한 문장(발화)을 종결되게 하는 어말 어미	발화 분류	형태 요소
통사적 종속성	서술어가 발화 끝에 있는 것	발화 분류	문법 요소

3. 발화의 판정과 유형

2장에서 정의한 발화 요소에 따라 우선 발화 판정의 체계를 살피고, 다음으로는 판정된 발화의 유형을 분류하도록 한다. 발화 판정에 필요한 요소는 말차례와 종결 억양, 휴지이다. 그러나 2장에서도 논의했듯이 휴지는 발화 판정의 핵심적 요소가 아니라 종결 억양에 귀속되는 부수적 요소이다. 따라서 핵심적 요소인 말차례와 종결 억양만으로 발화 판정의 체계를 만들 수 있다. 말차례는 바뀔과 안 바뀔, 종결 억양은 있고 없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사고의 과정에 따라 발화 판정의 체계를 그리면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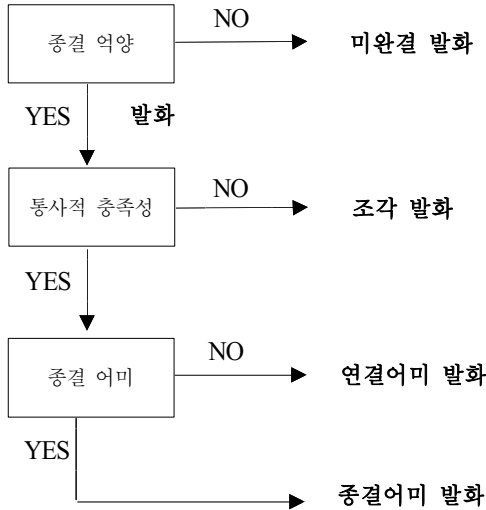


<그림 5> 발화 판정 체계도

말차례가 바뀌었다면 중단에 휴지는 당연히 있다. 즉 말차례가 바뀐 경우에는 휴지의 유무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말차례가 바뀐 경우 종결 억양이 있다면 화자의 의도가 온전히 반영된 하나의 발화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말차례가 바뀌었으나 종결 억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는 화자의 의도가 온전히 반영되기 전에 발화가 중단되었거나 화자가 발화 산출에 실패한 경우이다. 단위는 구분되나 온전한 발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런 예들은 ‘미완결 발화’로 범주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말차례가 바뀌지 않았다면 한 화자의 연속된 음성 중에서 종결 억양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종결 억양이 발견된다면 그 지점에서 발화가 구분된다. 그러나 종결 억양은 없고 휴지만 존재한다면 발화는 구분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온전한 발화로 판정된 발화는 발화 내적 구성 요소인 통사적 충족성과 종결 어미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통사적 충족성은 통사 구성 요소의 핵심인 서술어의 존재 여부이며, 종결 어미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종결 어미가 기준이 된다. 이러한 조합에 따라 발화의 유형을 분류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발화 유형 분류

종결 억양은 발화의 종결 지표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 발화가 종결 되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발화의 문법적, 화용적 기능을 나타내어 화자의 의도를 드러낸다. 따라서 종결 억양이 나타났다면 발화로, 종결 억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발화 실패 혹은 중단에 의한 온전하지 못한 발화 즉 미완결 발화로 나눌 수 있다.

문어에서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며 문법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종결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만 결합하는 형태소이나 구어에서 종결 억양은 어떠한 형태소에도 결합할 수 있는 문법소이다. 따라서 구어에서는 어떠한 통사적 성분으로도 발화가 종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통사적 구성 요소의 핵인 서술어의 존재 여부는 구어에서 발화의 유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서술어가 없는 발화는 통사적 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발화로서 화자와 청자가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들을 제외한 정보만으로 산출된 발화이다. 예컨대 앞선 화자의 질문에 의한 대답이나 구정보를 되풀이해서 산출하지 않고 신정보만을 이용해 내용을 구성한 발화나 혹은 대화 상대방이 발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호응해주는 간투사 등과 같은 발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발화는 온전한 집합의 일부분이라는 의미에서 ‘조각 발화’라는 용어를 택한다.¹³⁾

(10) 조각 발화의 예

- A(1) [1거기에 개가] 싸림문 옆에 가면서 “느그 아버지 고자라매?” 이러구 물어 봤어요
- B(1) [1아1]
- B(2) 누가?
- A(2) 여자 점순이가
- C(1) 점순이
- A(3) 점순이 맞죠?
- C(2) 어

(10)에서 B(1), B(2), A(2), C(1), C(2)는 모두 조각 발화의 예이다. B(1)은 A 화자가 ‘거기에 개가’라는 발화를 하는 동안 단순히 호응을 하는 발화이고, B(2)는 A(1)의 발화에서 ‘개가’의 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발화이며, A(2)는 B(2)에 대한 대답으로서 B가 원하는 정보만으로 구성하여 산출한 발화이며, C(1)은 A(2)의 발화에 대한 지지의 의도에서 역시 핵심이 되는 정보만으로 산출한 발화이고, C(2)는 A(3)에 대한 대답으로 산출한 발화이다.

조각 발화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은 매우 다양하나 한 가지 공통점은 화자와 청자가 이미 공유하고 있는 지식과 맥락을 통해, 그리고 담화의 앞뒤 맥락을 통해 조각 발화에서 화자의 의도를 복원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어에서처럼 서술어를 이용하여 온전한 단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하나의 단위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온전한 단위의 한 조각이라는 점에서 조각 발화는 독립된 발화가 될 수 있다.

서술어가 존재하는 발화는 종결 어미의 유무에 따라 유형이 세분될 수 있다. 종결 어미는 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발화에서도 단위를 종결하고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주는 기능을 한다. (11)의 A(1)과 B(1)에서 보듯이 종결 어미가 존재하는 발화는 문어의 문장과 형식적으로 같다. 이러한 발화는 다른 유형

13) 강상호(1989)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발화를 ‘조각문’이라고 하였다.

과 달리 종결 어미가 존재한다는 뜻에서 ‘종결어미 발화’로 부르기로 한다.

그러나 (11)의 A(2)에서 보듯이 구어에서는 종결 어미가 아닌 연결 어미로 끝맺는 발화도 매우 자연스럽다. 이는 김태경 외(2005), 조민하(2011), 전영옥(2003) 등의 선행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 연결 어미가 종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종결 억양 때문이다. 만약 연결 어미로 끝맺었으나 종결 억양이 없다면 청자는 연결 어미 뒤에 후행하는 절을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종결 억양이 있다면 청자는 종결 억양에 의해서 그 발화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며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발화는 ‘종결어미 발화’와 대비되는 차원에서 ‘연결어미 발화’로 부르기로 한다.

(11) 종결어미 발화와 연결어미 발화의 예

- A(1) 동백꽃 맞나?
- A(2) 그거 같은데
- B(1) 동백꽃 맞아
- A(3) 그쵸

이상 발화 내적 구성 요소에 의한 발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발화 구성 요소에 의한 발화 유형

번호	종결 억양	통사적 충족성	종결 어미	발화 유형
1	○	○	○	종결어미 발화
2	○	○	×	연결어미 발화
3	○	×	×	조각 발화
4	×	○	○	미완결 발화
5	×	○	×	미완결 발화
6	×	×	×	미완결 발화

<표 2>는 발화 내적 구성 요소 세 가지에 의해서 조합이 가능한 모든 유형을 제시한 것이다. 이 중에서 종결 억양이 없는 발화는 모두 ‘미완결 발화’로 간주할 수 있으며, 종결 억양이 있는 발화 중 통사적 충족성이 없는 것을 ‘조각 발화’로, 통사적 충족성이 있는 발화는 다시 종결 어미의 유무에 따라 종결 어미가 있는 것은 ‘종결어미 발화’로, 없는 것은 ‘연결어미 발화’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발화 유형은 발화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요건에 해당하는 종결 억양, 통사적 충족성, 종결 어미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러나 발화는 분류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더 고려할 수 있는 점들은 통사적인 관점에서 정상적인 어순의 여부, 화용론적인 관점에서 강조에 의한 반복의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정상적인 어순의 여부를 살펴보면 구어는 그 특성상 화자의 머릿속에 있는 언어적 정보가 즉각적으로 음성의 형태로 산출되기 때문에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가 먼저 산출되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후에 산출될 수 있으며, 정보를 다 산출하고 부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산출할 수도 있다.

- (12) ㄱ. A(1) 한 시간 동안 [애기를 해요?]
- B(1) [한 시간요?]
- C(1) 했잖아요 칠십 분 정도 한다고-
- B(2) 아 그냥 완전 프리토킹을 칠십분 동안 하는 거예요?

- ㄴ. A(1) 오늘 그럼 왜 하겠어요?
- B(1) 너 너무 인위적인데 그런 말은
- C(1) 아까처럼 해- 그냥
- B(1) 그래

(12-ㄱ)의 C(1) 발화를 보면 서술어가 발화의 제일 앞에 있으며 그 뒤에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성분이 인용절로 놓여 있다. 도치로 생각할 수 있다. ‘했잖아요’ 뒤에 종결 억양도 휴지도 존재하지 않은 발화이다. (12-ㄴ)에서는

B(1)과 C(1)의 발화 역시 정상적인 어순으로 산출되지 않았다. B(1)에서는 ‘그런 말은’이, C(1)에서는 ‘그냥’이 서술어 뒤에 산출되었다. 역시 도치로 생각할 수 있다.

회용적 관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성분을 반복하는 경우의 예는 (13)을 들 수 있다. (13)에서 A화자는 흥분한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데, A(3)에서는 ‘신 난다’를 반복하여 ‘신 나’를 덧붙이고 있다. 이는 통사적 성분이 복사된 반복 발화로 볼 수 있다.¹⁴⁾ 반복 발화는 성인 발화와는 달리 아동 발화에서 더 많이 관찰할 수 있는 발화이다. ‘우유 우유’, ‘시금치 싫어 싫어’, ‘가방에 없애 가방에’와 같은 발화를 예로 들 수 있다.¹⁵⁾

- (13) A(1) 고마워
- A(2) 영구학번 막
- A(3) 야 진짜 신 난다 신 나
- A(4) 공구학번 볼 생각하니까 진짜 신 난다

그 다음 한 발화 내에서 여러 개의 억양구로 연결된 연결 발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4)는 통사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발화이다. 그러나 ㄱ은 ‘스물여섯이구’ 뒤에 휴지가 개입되면서 억양구가 생성되었으며, ㄴ은 ‘스물다섯이구 학생입니다’가 휴지의 개입 없이 하나의 억양구로 생성되었다. ㄴ의 ‘스물다섯이구 학생입니다’는 한 발화로 볼 수 있으며, ㄱ의 ‘스물여섯이구// 학생입니다’는 ‘연결 발화’로 볼 수 있다.

- (14) ㄱ. 이○○이구요// 스물여섯이구// 학생입니다///
- ㄴ. 고○○이구요// 스물다섯이구 학생입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발화는 내적 구성 요소인 통사적 충족성과 종결 어미에

14) 회용적 관점에서의 반복 발화는 발화 실수에 의한 반복과는 구별된다.

15) 반복 발화와 도치 발화는 성인 발화와 아동 발화를 비교 분석하는 데 유용한 분류 기준이 될 수 있다. 차계은 외(2011)에서는 이 연구에서와 동일한 발화 판정 기준에 의해 2세~5세 아동의 발화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반복 발화는 줄어들며, 3세 이상부터는 도치 발화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의해서 종결어미 발화와 연결어미 발화, 조각 발화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는 정상적인 어순의 여부에 의해 도치 발화를, 화용적인 강조에 의한 성분 반복 여부로 반복 발화를 하위분류할 수 있고, 발화 내에서는 통사적으로 구별되는 절이 있고 그 뒤에 휴지를 갖춘 연결 발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실제 성인 자유발화를 통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발화 구분 요소와 발화 구성 요소에 의해 설정되는 발화 유형을 적용하여 실제로 발화를 나누고 계량적으로 살펴보아 발화 구분 및 유형 분류의 분석 틀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4. 발화 분석 결과 및 발화 판정의 실제

3장에서 제시한 발화 판정과 발화 유형 분류 분석 틀의 효용성을 점검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의 성인자유발화 코퍼스 중에서 1000 발화를 선택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1000 발화는 총 3,914 어절 규모이다. 1000 발화는 무작위로 선택하였으며 다만 화용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속적인 발화를 선택하였다. 발화 판정과 유형 분류는 두 명의 전문가가 분류 기호를 이용하여 코딩한 뒤, 교차 검토를 하였다.

<표 3> 분석 대상 자료 통계

발화 수	1,000 발화
어절 수	3,914 어절

분석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결어미 발화가 49.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조각 발화가 32.4%로 많았고, 연결어미 발화는 13.4%로 가장 적었다. 1000 발화 중 발화 실패나 중단에 의해 발화로 볼 수 없는 미완결 발화는 5%였다.

<표 4> 발화 유형 분류(대분류)

번호	발화 유형	빈도(회)	비율(%)
1	중결어미 발화	492	49.2
2	연결어미 발화	134	13.4
3	조각 발화	324	32.4
4	미완결 발화	50	5.0
합계		1000	100.0

한편 전체 발화 중 어순의 도치나, 성분의 반복, 내적 휴지에 의한 연결로 보이는 연결 발화가 아닌 정상 발화는 79.9%였으며, 도치 발화는 3.3%, 반복 발화는 2%, 연결 발화는 10%였다.

<표 5> 발화 유형 분류(소분류)

소분류	빈도(회)	비율(%)
정상 발화	797	79.7
도치 발화	33	3.3
반복 발화	20	2
연결 발화	100	10
미완결 발화	50	5
합계	1000	100

<표 6>에서 보듯이 중결어미 발화 내에서 정상 발화는 78.5%였고, 도치 발화는 6.3%, 반복 발화는 2.4%, 연결 발화는 12.8%였다. 연결어미 발화 내에서 정상 발화는 74.6%, 도치 발화는 0.7%, 반복 발화 0.7%, 연결 발화는 23.9%였다. 조각 발화 내에서 정상 발화는 96.0%, 도치 발화는 0.3%, 반복 발화는

2.2%, 연결 발화는 1.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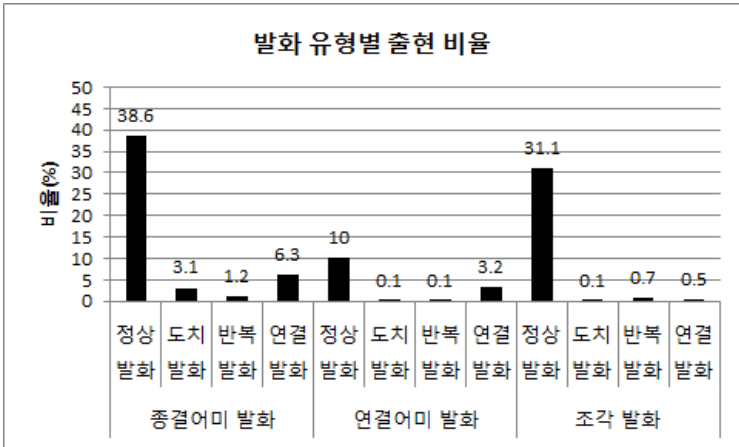
<표 6> 발화 유형별 세부적인 분류

번호	발화	소분류	빈도(회)	발화 내 비율(%)	전체 비율(%)
1	종결어미 발화	정상 발화	386	78.5	38.6
		도치 발화	31	6.3	3.1
		반복 발화	12	2.4	1.2
		연결 발화	63	12.8	6.3
		소계	492	100	49.2
2	연결어미 발화	정상 발화	100	74.6	10.0
		도치 발화	1	0.7	0.1
		반복 발화	1	0.7	0.1
		연결 발화	32	23.9	3.2
		소계	134	100	13.4
3	조각 발화	정상 발화	311	96.0	31.1
		도치 발화	1	0.3	0.1
		반복 발화	7	2.2	0.7
		연결 발화	5	1.5	0.5
		소계	324	100	32.4
4	미완결 발화	미완결 발화	50	100	5.0
합계			1000		

모든 발화에서 정상 발화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특히 조각 발화에서는 96%로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도치 발화와 반복 발화, 연결 발화의 비율은 발화 유형 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도치 발화의 비율이 가

장 높은 발화는 종결어미 발화였고, 연결 발화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발화는 연결어미 발화였다. 그러나 반복 발화는 어떠한 발화에서도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7>에서 보듯이 전체 발화를 대상으로 그 순위를 살펴보면 종결어미 발화(정상) 38.6%, 조각 발화(정상) 31.1%가 다른 발화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결어미 발화(정상) 10.0%, 종결어미 발화(연결) 6.3%로 높았고, 나머지 발화는 모두 5.0% 미만으로 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 발화 유형별 출현 비율

1000 발화를 대상으로 분석 틀을 점검해 본 결과 2장과 3장에서 제시한 발화 요소의 정의가 타당하며, 발화 유형 분류의 틀이 적용 가능한 모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이 연구는 발화에 관한 국어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언어 병리학이나

한국어 교육 등의 응용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발화 판정과 유형 분류의 틀을 제시하고 그것의 효용성을 검증해 보려는 목표로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발화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이를 발화 판정 요소와 발화 구성 요소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판정 요소와 구성 요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정의하였다. 발화 판정 요소는 ‘말차례’, ‘종결 억양’, ‘휴지’였으며, 이 세 요소를 대상으로 발화를 판정하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발화 구성 요소는 ‘통사적 충족성’, ‘종결 어미’, ‘휴지’였고 이 세 요소를 대상으로 발화 유형을 분류하였다. 또한 분류 목적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발화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정상 어순’, ‘성분의 복사’, ‘발화 내 휴지 개입’을 기준으로 ‘도치 발화’, ‘복사 발화’, ‘연결 발화’를 설정하여 세부적인 유형 분류도 시도하였다.

이처럼 발화 구분(판정) 요소와 발화 분류(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체계를 세우고, 각 요소들로 발화 판정과 발화 분류의 틀을 마련하여 실제 구어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분류의 틀이 적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그동안 발화 연구에서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못했던 발화 분석과 분류의 틀을 제시했다는 것과 실제 구어 자료를 대상으로 그 틀이 적용 가능한 것인지 그 효용성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분류의 틀은 언어병리학, 한국어교육학, 음성 공학과 같은 응용 분야에서 발화를 판정하고 분류하는 데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구어 자료의 발화 유형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경험적인 연구의 한계로서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자료에서 출현하지 않은 발화 유형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발화 유형은 앞으로 다양한 구어 자료를 관찰하여 추후에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호(1989). 『조선어 입말체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 김영태(1997). “한국 2-4세 아동의 발화길이에 관한 기초연구.” 『말언어장애연구』2 (한국언어병리학회), pp.5-26.
- 김태경 · 김정선 · 최용석(2005). “구어 주석 코퍼스 구축을 위한 발화 단위 연구.” 『한국언어문화』28 (한국언어문화학회), pp.5-25.
- 배소영(1996). “Korean Developmental Language Scoring(KDLS): 한국어 언어발달 측정.” 한국언어병리학회 학술심포지움.
- 신선경(1999). “TV 광고의 텍스트 언어학적 특징: 발화 단위와 형식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117-140.
- 신지연(1999). “대화분석의 실제와 응용 구어의 텍스트 형성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209-227.
- 유필재(1994). 『발화의 음운론적 분석에 대한 연구: 단위 설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지연(1998). 『국어 지시용언 연구』. 서울: 태학사
- 신지영(2008). “성인 자유 발화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의 음소 및 음절 관련 빈도.” 『언어척각장애연구』 13-2 (한국언어척각임상학회), pp.193-215
- 신지영(2011). 『한국어의 말소리』. 지식과 교양: 서울.
- 안병섭(2008). 『국어 운율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오재혁(2011). 『국어 종결 역양의 문법적 기능과 음성적 특징에 대한 지각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윤경(2009). “구어와 언어병리학 토론편.” 『제 51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108-110.
- 이희자(2002). “‘의사소통의 최소 단위’로서의 ‘발화문’과 ‘문장.’” 『텍스트언어학』 1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343-366.
- 진영옥(2003). “한국어 억양단위 연구-통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10-1 (담화인지언어학회), pp.241-265.
- 진영옥(2006). “구어의 단위 연구.” 『한말 연구』 19 (한말연구학회), pp.271-299.
- 조민하(2011). 『연결 어미의 종결 기능과 억양의 역할』.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차재은 · 김수진 · 김정미 · 윤미선 · 오재혁(2011). “발화 구성 요소와 아동 발화 관정의 실제.” 언어척각임상학회 · 언어치료학회 제2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김수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331-718

전화번호: 041-570-7978

전자우편: sjkim@kornu.ac.kr

차재은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9길 24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20-702

전화번호: 02-390-5160

전자우편: jecha3@hanmail.net

오재혁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36-701

전화번호: 02-3290-1667

전자우편: with5jea@hanmail.net

원고 접수일: 2011년 11월 16일

원고 수정일: 2011년 12월 14일

계재 확정일: 2011년 12월 21일